Diploma Programme
Programme du diplôme
Programa del Diploma

Korean A: language and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angue et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engua y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Wednesday 4 May 2016 (afternoon)
Mercredi 4 mai 2016 (après-midi)
Miércoles 4 de mayo de 2016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n analysis on one text only.
-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d'un seul texte.
- Vous n'êtes pas obligé(e) de répondre directement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souhaitez.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de un solo texto.
-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de orientación que se incluyen, pero puede utilizarlas si lo dese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2216 – 2043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16

International Baccalaureate®
Baccalauréat International
Bachillerato Internacional

https://xtremepape.r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그 글의 맥락, 독자, 글의 목적의 중요성 및 형식적• 문체적 특징을 분석하는 글을 쓰십시오.

본문 1

“더 우수하거나 열등한 문자는 없다”

“세계문자 서울선언” 10월 26일 채택 “세계문자심포지아 2014” 11월 2일까지

“세계문자심포지아 2014” 참가자들이 26일 문자평등을 위한 “세계문자 서울선언”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문자심포지아 제공

문자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세계문자 서울선언”이 채택됐다. 세계문자연구소가 주최한 “세계문자심포지아 2014”에서 참가자들은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각 민족은 고유 문자를 이용해 각기 독특한 문명을 이루고 있기에 문자의 다양성 보존은 문명 다양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문자는 자신이 만든 문명에 대해 고유 가치를 지니기에 더 우수한 문자도, 더 저열한 문자도 없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선언문에서 “오늘날 문자 생태계는 세계적 소통의 극대화를 이상으로 삼는 세계화로 말미암아 강대국의 언어로 획일화될 위협을 맞고 있다”면서 “문자는 인간이 자기를 표현하는 존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를 빼앗는 것은 인간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반대로 문자 다양성의 보존은 인권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건강한 문자 생태계를 만들고 가꾸는 일은 인류 모두에게 중요할뿐더러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지켜야 할 7개 항목도 제시했다.

https://xtremepape.rs/

선언문은 모든 문자는 평등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국의 고유 문자로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하고 문자 선택에서 강제와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각국 정부와 전 세계 지식인들은 각국 문자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하고 자국 문자사용 장려, 개발도상국의 번역 사업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자와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문자 축제인 세계문자심포지아는 다음 달 2일까지 열린다.

서윤경, *국민일보*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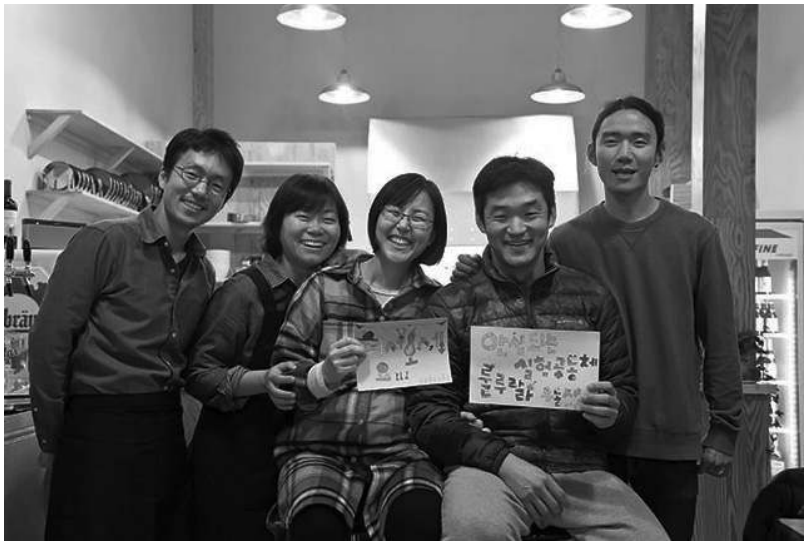
– 글쓴이는 어떻게 형식적인 면과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는지 설명하시오.

–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글을 읽는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하시오.

https://xtremepape.rs/

본문 2

“가족 아닌 가족 같은”, 사람들



나는 그랬다. 삶의 무의미에 대해 자주 집착했고 스스로 허무감에 빠질 때가 많았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몰랐으며 나를 존중하고 긍정하는 데 마음을 잘 쓰지도 못했다. 같이 살 사람이 필요했다.

30세, 공동생활에 뛰어들었다. 방 두 칸짜리 빌라에 네 명이 함께 살았다. 한 방은 잠자는 방으로 쓰고 다른 방은 공부방으로 사용했다. 돌아가면서 아침밥을 차려 먹고 야근하는 사람을 위해 빨래를 대신 개주었으며 청소도 같이 했다. 일주일에 한 번 “방모임”을 가졌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상대가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땐 직설적인 조언도 했다. 희로애락을 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삶, 공동체적인 그것이 있었다.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우리동네사람들(이하 우동사) 401호도 비슷하다.

“공동체 사람들”
1문1답

… 함께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

우리는 “얼싸안은 가슴”과 “맞잡은 손”의 힘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손”의 경쟁보다 “마주잡은 손”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사람이 원래 경쟁보단 협력을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

인간은 “협동”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상대를 쓰러트릴 때보다 상대를 감싸 안을 때 더 쾌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https://xtremepape.rs/

…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고 들었어요. …

우리는 각 방의 리더를 두기보단 “소리통 담당자”를 둡니다. 방에서 모인 의견을 전체회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모두가 동의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엔 지난한 노력과 시간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차량을 서로 공유한다고요? …

차량 명의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해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내 것, 네 것”을 나누기보단,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동 책임을 가지고 소중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동사 식구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

지친 업무에 피곤할 수 있지만 주말엔 우동사 식구들과 농사를 지으러 강화도에 갑니다. 협력하며 땀 흘리는 것이 고됨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 구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을 더 이롭게 한다고요? …

흔히 힘이 한쪽으로 모여야 조직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조금 달라요. “구심력”보단 “원심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을 하나의 “점”이 없어도 다양한 힘이 어울려 한 방향으로 작용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낸다고 보죠. 다양성이 충분히 인정된 조직에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승권, <*The Big Issue Korea*> (2014)

- 그림의 사용, 배치, 글씨 크기 등의 형식적 특징의 사용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https://xtremepape.rs/